

## 다니엘서 - 제29편

벨사살의 잔치와 예언의 때: 일요일 법령, 바벨론의 몰락, 그리고 최후의 위기를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3-12-24

벨사살의 잔치는 일요일 법령의 '때'를 지목하지만, 강조점은 공화주의 뿔에 대한 심판에 둔다.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기호로 높이 들려지는 맥락에서 제시한다. 다니엘서 6장은 같은 역사적 흐름을 다루지만, 개신교 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벨사살은 '국가'를 대표하며, 자신의 '귀족들' 천 명을 불러 모았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벨사살은 포도주를 맛보는 동안,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왕과 그의 귀족들,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으로 마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가져왔고, 왕과 그의 귀족들,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로 마셨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며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의 촛대 맞은편 벽의 석고 위에 글을 썼고, 왕은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았다. 다니엘 5:1-5.

'열'이라는 수는 용을 상징하며, 백과 천은 그 동일한 상징을 확대한 것일 뿐이다. 6장에서는 '백이십'이 기만적인 법을 밀어붙이고, '백이십'은 제사장들을 상징한다. 'line upon line'을 고려하면, 벨사살의 잔치는 부패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과 부패한 교회 정치에 대한 심판을 보여 주고 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을 모독하기로 작정했다.

선지자는 말한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가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도다'(계시록 18:1, 2). 이것은 둘째 천사가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이다. 바벨론은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에' 무너졌다(계시록 14:8). 그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녀의 거짓 교리이다. 그녀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내놓았고, 에덴에서 사탄이 처음 하와에게 한 그 거짓말—영혼의 자연적 불멸—을 되풀이해 왔다. 그녀는 유사한 많은 오류들을 널리 퍼뜨리며,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친다'(마태복음 15:9). 선택된 기별, 제2권, 118.

벨사살이 마시던 포도주는 교황권의 이상적 안식일이었다. 그 연회는 일요일 법령의 예언적 "한 시간"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그가 연회장으로 가져온 성소의 그릇들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낸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그릇들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는 문자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대표하며,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게 서 있으며, 이런 인침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자기에게 속한 이들을 아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불의에서 떠나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니,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19-21.

강요된 일요일 예배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그 한복판에서, 불타는 글씨가 벨사살의 파멸을 또렷이 써 내려간다.

그 시각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왕궁의 회벽, 등잔대 맞은편에 글을 썼고, 왕은 글을 쓰는 그 손의 일부를 보았다. 이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허리의 마디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쳤다. 왕이 크게 외쳐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라 하였다.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여 주는 자에게는 주홍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 주며 나라에서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 5:5-7.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벨사살의 아버지가 정치적 왕좌를 벨사살에게 넘겼다고 이해되어 왔으며, 그래서 그의 아들이 벽에 쓰인 글의 해석에 대해 제공할 수 있었던 최상의 보상은 셋째 통치자의 지위였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정치 지도부가 새로운 예배 형태를 도입하려고 활동하는 종교 지도부에 종속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짐승의 우상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 곧 그 관계를 교회가 주도하는 상태를 가리키며, 일요일 법령의 맥락에서 벨사살은 정치적 왕으로서 국가를 상징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종교적 권위 아래에서 단지 2인자였다. 그가 다니엘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최선은 셋째가 되는 것이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을 떠나 이교의 예식과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였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잃었고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지원을 구했다. 그 결과는 교황권이었다. 곧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 특히 '이단'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였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이루려면, 종교 권력이 세속 정부를 통제하여 교회가 국가의 권위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 .

개신교회들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곧 교황권, 즉 짐승, 의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다. 제4계명의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참된 안식일 대신 거짓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리함으로써 그것을 유일하게 명하는 그 권세에 경배를 드리는 셈이 된다. 그러나 세속 권력으로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에서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일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쟁투, 443, 448, 449.

위기 속에서 성품이 드러나며, 벽에 쓰인 신비한 글은 벨사살에게 위기를 초래했고 그의 왕국의 종말을 알렸으니, 이는 곧 땅의 짐승의 왕국의 끝을 상징한다. 바로 그 밤에 벨사살은 죽었는데, 이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며, 그때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미국이 전복되지만 미국은 즉시 열 왕 가운데 첫째가는 왕으로 전환한다. 열 왕은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이며, 그들은 즉시 그들의 왕국인 일곱째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넣어 한 뜻을 품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 요한계시록 17:17.

최종 국면들은 급속하게 전개되며, 여섯째 왕국에서 일곱째로, 그리고 여덟째로의 전환도 빠르다. 그때 세상은 큰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복은 벨사살을 두렵게 하며, 열 왕들 가운데 으뜸인 왕으로서 그는 미국의 전복 때 땅의 모든 왕들이 겪게 될 두려움을 대표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벽에 글씨가 나타나는 그 '때'는 큰 지진의 '때'이다. 그 시점에 이슬람의 세 가지 상징이 표시되며, 마지막 때에 왕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슬람이다.

보라, 왕들이 함께 모여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당황하여 급히 물러갔도다. 거기서 그들을 두려움이 사로잡았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산고가 그들을 엄습하였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부수시나이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 성, 곧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이다. 셀라. 시편 48:4-8.

귀족들 또는 왕들은 벨사살의 연회에 모여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한 기물들을 만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벽에 글씨가 나타났을 때 벨사살이 두려워한 것으로 표현되듯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벨사살의 두려움은 산고를 겪는 여인으로 상징되는 점점 고조되는 두려움의 시작이었고, 요한계시록 11장의 '그 시'는 12장으로 이어지며, 거기서 표징은 해산하려는 여인으로 나타난다. 첫 산고는 연회장 벽에 쓰인 글씨다. 그 두려움은 '타르시스의 배들을 부수는' 이슬람의 '동풍' 때문에 생긴 것이다.

벨사살의 연회장에서는 "천 명의 귀족들이" 일요일 강제 시행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때 벨사살이 성소의 장식품들을 가져오게 하자, 느부갓네살의 악단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두로의 음녀가 노래하기 시작하고, 배도한 이스라엘은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그러나 그 잔치는 "동풍", 곧 속히 임하는 "셋째 화"이자 "일곱째 나팔"에 의해 깨진다. 이슬람이 그 잔치를 깨뜨릴 때, "열방이 분노한다." 그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구의 경제 구조의 상징인 다시스의 배들이 그때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하기 때문이다.

다시스는 각종 풍부한 재물이 많음으로 네 상인이 되었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으로 네 장터에서 거래하였다. 야완과 두발과 메섹도 네 상인이었으니, 그들은 사람들과 놋그릇을 네 시장에서 거래하였다. 도갈마 집의 사람들이 말과 기병과 노새로 네 장터에서 장사하였다. 드단 사람들은 네 상인이었고, 많은 섬들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그들은 네게 예물로 상아의 뿔과 흑단을 가져왔다. 시리아는 네가 만든 물품이 많음으로 네 상인이 되었고, 에메랄드와 자색 옷감과 수놓은 일과 세마포와 산호와 마노로 네 장터에서 장사하였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도 네 상인이었으니, 민닛의 밀과 판낙과 꿀과 기름과 유향으로 네 시장에서 거래하였다. 다메섹은 네가 만든 물품이 많고 모든 재물이 풍부함으로 네 상인이 되었으니,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털로 장사하였다. 단과 야완도 왕래하며 네 장터에서 장사하였으니, 빛나는 철과 계피와

창포가 네 시장에 있었다. 드단은 병거에 쓰는 귀한 옷감으로 네 상인이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도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로 너와 거래하였으니, 이것들로 그들은 네 상인이 되었다. 스바와 라아마의 상인들은 네 상인이었으니, 모든 으뜸가는 향품과 모든 보석과 금으로 네 장터에서 장사하였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의 상인들과 앓수르와 길맛이 네 상인이었다. 이들이 갖가지 물건으로 네 상인이 되었으니, 청색 옷감과 수놓은 일과 값진 의복을 담은 궤, 줄로 매고 백향목으로 만든 궤를 네 상품 가운데서 거래하였다. 다시스의 배들이 네 시장에서 너를 노래하였고,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성하게 되어 크게 영화로웠다. 네 노 젓는 자들이 너를 큰 물로 데려왔으나,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다. 네 재물과 네 장터와 네 상품과 네 선원과 네 키잡이들과 네 틈을 메우는 자들과 네 상품을 취급하는 자들과 네 안에 있는 모든 용사들과 네 한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들이 네 멸망의 날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리라. 에스겔 27:12-26.

"다시스의 배"는 지구의 경제 구조를 상징하며, "동풍"에 의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한다. 에스겔은 이것이 "네 멸망의 날"에 일어난다고 알려 주며, 에스겔 27장의 주제는 두로에 대한 애가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또 두로에게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많은 섬들의 백성들과 장사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에스겔 27:1-3.

두로의 멸망의 날은 애가의 주제이다. 두로의 멸망의 날은 일요일 법령인데, 두로는 교황권의 상징으로서 그 심판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이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그 "hour"에 시작된다.

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하더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그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갑절로 갚아 주라. 그가 채운 잔에 그에게 갑절을 채워 주라. 그가 자기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았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이르리니, 곧 죽음과 애통과 기근이라. 그 성은 불로 완전히 사르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성이 불타는 연기를 볼 때 그를 위하여 울고 애곡하며, 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멀리 서서 말하기를,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강한 성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임하였도다'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울고 애통하리니, 다시는 아무도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8:4-11.

다니엘서에서 'hour'라는 단어는 다섯 번 사용되며, 그때마다 항상 어떤 형태의 심판을 가리킨다. 어떤 심판인지는 그 단어가 사용된 본문의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다니엘 4장에서 'hour'라는 말은 심판이 임함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데 사용되며, 그것이 1844년 10월 22일에 시작된 조사 심판이든, 일요일 법령 때 시작되는 집행 심판이든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조사 심판과 집행 심판은 점진적이다. 교황권의 집행 심판은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된다. 그것이 교황권의 집행 심판이 시작되는 'hour'가 되며, 그 'hour'는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hour'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대표되는 두 증인이 에스겔의 강한 군대로서 들어 올려지는 기치로서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이다. 그 'hour'는 벨사살의 벽에 글씨가 나타나는 때이다.

"다르시스의 배들"은 지구의 경제 공급망 구조를 상징하며, 그때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고, 그로 인해 벨사살로 대표되듯 땅의 상인들과 왕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 '시각'을 이슬람의 '셋째 화'가 속히 임하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며, 열방이 분노하는 때로 말한다. 그 세 가지 상징 모두는 바로 그 '시각'에 벨사살을 죽이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적 도구로서 이슬람을 가리킨다. 벨사살은 부주의하게 열린 채로 방치된 성문들을 통해 적들이 몰래 그의 왕국으로 들어옴으로써 살해되었는데, 이는 '큰 지진'의 '시각'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장벽이 부주의하게 열린 채로 방치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의 치유는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제시되어 있다. 그 구절들에서는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극복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지목된다. 북방 왕은 최고 권력에 이르는 길에서 항상 세 가지 장애물을 정복하는데, 그 순서는 언제나 첫째 그의 적, 둘째 그의 동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희생자이다. 첫 번째로 정복된 대상은 남방 왕으로, 로마의 마지막 적을 대표하는 소비에트 연방이며, 1989년에 쓸려가듯 무너졌다. 두 번째 장애물은 영화로운 땅으로, 로마를 위해 소련을 정복한 로마의 동맹인 미국을 가리키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때'에 정복된다. 그 후 세 번째 장애물은 이집트로 표현되는데, 이는 교황권이 그 희생자인 국제연합(UN)을 장악하게 됨을 의미한다.

1989년에 그 구절들의 봉인이 풀리고, 그 후 그 구절들에 대한 지식이 증가했을 때,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그리고 현대 로마(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여섯 절에서 북방 왕으로 표상된)가 각각 왕국으로 수립되기 전에 세 가지 지리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교 로마의 경우, 그 세 가지 장애물은 세 방향으로 표상되었다.

그 중의 하나에서 한 작은 뿔이 나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다니엘서 8:9.

교황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뽑혀야 할 세 개의 뿔이었다.

내가 그 뿔들을 생각하는 중에, 보라, 그들 가운데서 또 다른 작은 뿔이 올라왔고, 그 앞에서 먼저 있던 뿔들 가운데 세 뿔이 뿌리째 뽑혔다. 또 보라,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이 있었다. 다니엘 7:8.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 묘사된 현대 로마(북방의 왕)에게 세 가지 장애물은 남방의 왕, 영화로운 땅, 그리고 애굽이었다.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장애물은 지리적 장애물을 상징했다.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에서 북방의 왕으로 나타난 현대 로마는 세 개의 '장벽'을 극복해야 했고, 첫 번째 장벽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벽이 제거될 때 동시에 철학적 '장벽'도 제거되었다. 1989년, 북방의 왕이 소련(남방의 왕)을 붕괴시켰을 때, 베를린 장벽이 해체됨에 따라 '철의 장막'이라는 철학적 '장벽'이 제거되었다.

벨사살의 심판의 '때'에, 벽에 글씨가 쓰여 있고 그의 원수들이 경비되지 않은 문들을 통해 비밀리에 들어오고 있을 때, 정교분리라는 철학적 '벽'이 철폐되는 한편, 셋째 화의 이슬람은 영광의 땅 남쪽 국경의 감시되지 않은 '벽'을 통해 비밀리에 들어왔다.

유엔을 대표하는 "이집트"가 정복되고, 모든 나라가 두로의 창녀가 주도하는 세계 단일 정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면서 철학적인 "국가 주권의 장벽"이 제거될 때, 그때 말세의 계엄령과 전제정치를 초래하는 금융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월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충분히 무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인색하게만 드러지고 이기적으로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재물은 머지않아 모든 우상들과 함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질 것이다. 영원의 실상이 사람의 감각에 열릴 때, 돈의 가치는 곧 아주 갑작스럽게 떨어질 것이다. 구호봉사, 266.

다음 글에서 벨사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외쳤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열왕기상 18:21. 그리고 오늘을 위한 메시지는 이러하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요한계시록 18:2, 4, 5."

"시험이 모든 영혼에게 임할 때가 멀지 않았다. 거짓 안식일의 준수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고 세속의 관습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감수하기보다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때 정금은 찌꺼기와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걸모양이나 걸치레와는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그 빛남을 찬탄하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에서 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을 걸쳤으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은 그때 자기 별거벗음의 수치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선지자와 왕들, 187, 188.